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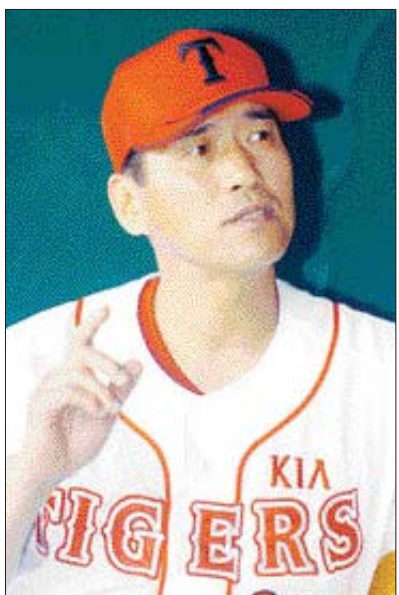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이대로 날고 싶다” 29일 캐나다 앨버타주 레이크 루이스에서 열린 스키 월드컵 여자 활강대회에 출전한 캐나다의 캘리 밴더비크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日 캠프 마친 KIA 조범현 감독 인터뷰**

“강도 높은 훈련 소화  
자신감 회복 큰 성과”



“이종범 타격폼 수정  
김선빈 가능성 발굴”

많이 던졌다. 선수단 전체적으로 기술이 많이 향상됐다.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게 주된 내용은.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만큼 목적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라는 뜻이었는데 내 뜻이 많이 통한 듯 하다.

-캠프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최희섭, 장성호, 이현근, 한기주 등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 착출돼 내년 시즌 전력 구성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게 됐다.

-캠프 분위기.

▲선수들 사이에 경쟁심이 많이 생겼다. 특히 이종범 등 고참 선수들이 앞장서 훈련에 참여해 분위기가 밝고 좋아진 것 같다. 고참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번 마무리캠프는 다른 해와 달리 훈련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선수단 만족도는.

▲개인기술 보완에 중점을 뒀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해야한다는 목적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

-눈에 띄는 신인이나 유망주는.

▲김선빈은 내야수로서 안정감을 보였다. 백용환은 공격적인 배팅능력이 눈에 띄었다. 또 고우석과 이범석 등 젊은 유망주들이 좋은 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귀국 후 일정은.

▲재활선수 관리에 신경 쓰겠다. 12월 중 행사도 참가하고 2년간 기록을 체크한 후 내년 시즌 구성을 할 계획이다.

-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올 시즌은 타이거즈가 여러면에서 많은 실망을 가져드렸다. 내년 봄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팬들에게 사랑받는 팀, 강한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니 내년 가을엔 야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9일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를 마치고 귀국한 조범현 KIA 신임 감독이 훈련 성과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인 및 1.5군, 베테랑까지 총 44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를 통해 조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위축됐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훈련을 시작한 KIA는 지난 2일 일본으로 넘어가 4일 훈련 1일 휴식의 일정으로 28일간 구슬땀을 흘렸다.

선수 개인들의 기술 향상으로 인한 경쟁심 유발이라는 목표 달성도 이뤘다. ‘최고참’ 이종범은 타격폼을 과감히 수정하면서 솔선수범했고, 이용규도 내년 3할-30도루를 목표로 손바닥에 붙잡이 터지도록 방망이를 휘둘렀다.

조 감독은 “외야에는 누굴 주전으로 해야할 지 벌써 고민될 정도로 꼭 찼다. 내야에선 김선빈의 가능성을 발굴한 게 큰 소독”이라며 흡족해했다.

조범현 감독과 일문일답.  
-미야자키 캠프 성과는.  
▲개인과 팀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 집중력을 가지고 훈련하면서 많이 되고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전에서 ‘야구 삼국지’를 펼칠 한국, 일본, 대만은 각국의 독특한 스타일로 본선행 티켓에 도전 중이다.

한국은 기동력을 앞세운 뛰어난 야구, 일본은 철벽 마운드와 물샴 틈 없는 세밀한 야구, 대만은 장타력을 앞세운 ‘빅 볼’ 야구를 내세웠다.

발야구로 두산을 한국시리즈 준우승으로 이끈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대만전에서 발 빠른 선수들을 중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선수들에게 일일이 선발 출장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선수들이 나설지는 이미 이삼전점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형, 이종욱, 고영민, 정근우 등 합쳐서 도루 160개를 기록한 썩썩이 4인방의 출장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찬스를 끊임없이 만들고 김동주-이대호-장성호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에서 적시타를 노리는 경제적인 야구를 펼치겠다는 게 김 감독의 계산이다.

12월1일 대만을 격파한다면 기세가 올라 일본전에도 그대로 기용될 가능성도 크다. 가와사키 무넨오리-니시오가 쓰

■ **올림픽야구 2예선 ‘3국 3색’**

한국-기동력  
일본-투수력  
대만-장타력

요시-아오키 노리치카 등 3인방과 한국의 대도 4인방이 펼치는 발야구의 향연이 인터컨티넨탈 구장을 화려하게 수놓을 수도 있다.

투수 출신 호시노 센이치 일본 대표팀 감독은 선동열 대표팀 코치에게 ‘지키는 야구’를 전수한 원조다.

1999년 주니치, 2003년 한신을 샌프란시스코 정상으로 이끈 호시노 감독은 당시 3.39, 3.53으로 팀 방어율 1위를 차지하며 잔물 야구의 진수를 선보였다.

대표팀을 맡은 이번에도 후쿠도메 고스케, 다카하시 요시노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 등 대포 3인방이 빠져지만 강력한 마운드를 앞세워 상대 타선을 틀어 막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명투수 출신인 대만 귀타이위안 감독의 스타일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04년 성타이 코브라스 감독을 역임했지만 뚜렷한 성적은 남기지 못했고 다만 현재 대만 전력상 투수보다는 타자들의 한 방을 중용하는 야구를 펼칠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류현진

‘좌완 특급’ 류현진(20·한화)과 일본 대표팀 에이스 다르빗슈 유(21·니혼햄 파이러스)가 다음달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벌어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아시아 예선 한-일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는 29일 호시노 센이치 일본 대표팀 감독이 한국전 선발 투수로 다르빗슈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12월1일 대만을 격파한다면 기세가 올라 일본전에도 그대로 기용될 가능성도 크다. 가와사키 무넨오리-니시오가 쓰

선발 자존심 대결

라이온스, 3번째 경기인 대만전에는 좌완 나루세 요시히사(22·롯데 마린스)가 각각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우완 정통파 투수인 다르빗슈는 일찌감치 한국전 선발로 예상됐다.

직구 최고구속이 시속 151km에 이르는 다르빗슈는 올 시즌 15승5패, 평균자책점 1.82를 올리며 투수 최고의 영예인 사와무라 상을 받은 정상급 투수이기 때문이다.

호시노 감독으로서는 한 장의 올림픽 티켓이 걸린 이번 아시아 예선에서 단적인 한국을 잡기 위해서는 에이스 기



일본  
다르빗슈

용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한국은 아직 일본전 선발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괴물’ 류현진이 다르빗슈의 맞대결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신인으로 18승과 평균자책점 2.23, 204탈삼진으로 투수 트리플 크라운 위업을 달성한 류현진은 올해에도 17승을 수확하며 삼진 178개를 속아내 탈삼진왕 2연패를 달성했다. 에이스끼리 자존심 대결에서 누가 웃을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



29일 광주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전국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에서 남자 전맹부 육상 400m 결승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광주체고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역주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사)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선수, 임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수영 2개 종목에서 전맹부, 약시부로 나눠 총 40개의 금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골든글러브 후보 46명 발표

한국야구위원회는 29일 8개 포지션 별로 올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삼성PAVV 골든글러브 후보자 46명을 발표했다.

투수 부문에는 올 시즌 최우수선수(MVP)에 빛나는 다니엘 리오스(두산)를 비롯해 탈삼진왕(178개) 류현진(한화), 세이브(40개) 1위 오승환(삼성), 홈런왕(23개)을 차지한 류택현, 30세이브를 챙긴 우규민(이상 LG)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12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임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연도	골프장 시세/연도
광주 3,500	광명 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한림 7,400

상당 분야의 (062)351-0095